

명문 대학 진학하고 싶다면 AP 과목을 주목하라

미국 대학들은 학생을 선발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들이 입학 사정에 사용하는 요소는 19가지나 된다. 이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GPA(학교 성적), 도전적 선택 과목, 표준 시험 점수, 과외 활동, 추천서, 고교 간 학력 차이(strength of school), 에세이, 특기, 인성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코 고등학교 성적이다. 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학생이 얼마나 도전적인 과목(AP, Honor)을 이수했는지 여부이다.

학기가 시작될 때 고등학교의 카운슬러들은 학생들을 면담하면서 과목 선택에 대한 조언을 한다. 그럼에도 도전적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SAT, ACT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각 학년 별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성적을 받았는가는 대학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점점 더 많은 대학들이 입학 사정에서 고등학교 과정 중 어려운 도전적인 과목을 얼마나 수강했는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15개의 AP 주요 과목들이 개설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학생은 9 과목을 들었고, B 학생은 3 과

목을 이수했다면 당연히 대학은 9 과목을 이수한 A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3 과목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과연 대학에 진학을 해서 어려운 과정을 이수할 준비와 동기가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AP 과목이 4 과목밖에 개설이 안 됐는데 그럼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할 때 AP과목이 많이 개설된 학교의 재학생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학들은 학생이 다닌 학교의 학업적 환경을 충분히 감안해 입학 사정을 한다. 즉 해당 학교에 AP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몇 개 과목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다.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10개의 AP 과목이 개설된 학교에서 3 과목을 들은 학생과 3 과목 밖에 개설이 안 된 학교에서 3 과목을 들은 학생들 가운데 누가 더 도전적이라고 판단할까?

어떤 학생들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하는 수준의 높은 과목을 찾을 수 없어 인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과목들을 수강하고 학점을 받기도 한다. 이런 경우 대학 입학 사정관들에게는 매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도 들 수 있다. ‘레귤러 과목에서

A와 AP에서 B를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대학 입시에 더 유리할까?’ 예를 들어 레귤러 과목에서 A를 받는 것과, AP 과목에서 B를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대학 입시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확실한 답은 없지만 가장 좋은 경우는 AP 과목에서 A를 받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매 학년마다 지난 학년에서 선택한 과목보다 좀 더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고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에 맞게 AP를 정해야 한다. AP과목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강하고 있는 AP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입학 사정 요소 가운데에는 ‘Student’s demonstrated interest’ 가 있다. 고등학교 재학 시 과목 선택에서 관심 분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엔지니어링 전공을 하겠다는 학생이 수준 높은 수학(Math), 물리학(Physics) 과목을 듣지 않았다면 들은 학생에 비해 당연히 대학 입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입학 사정관들은 학생이 얼마나 준비된 학생인가를 보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단지 합격 가능성만을 보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 진학해서 선택한 전공 과목을 잘 이수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도전적인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경쟁이 치열한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어느 대학 출신 연봉이 가장 높을까?

아이비리그 대학은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엘리트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입학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아이비리그 출신들의 졸업 후 연봉 순위는 어떻게 될까? 미국 연봉 관련 사이트인 Payscale.com이 최근 ‘2019-20 college salary report’ 를 통해 아이비리그 졸업생 연봉 순위를 공개했다. 우측은 ‘Payscale.com’ 이 공개한 내용이다. 지면 여건으로 1위-5위까지만 소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payscale.com/college-salary-report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Rank	School Name	School Type	Early Career Pay	Mid Career Pay	% High Meaning	% STEM Degrees
1	Harvey Mudd College	Engineering, Liberal Arts School, Private School	\$88,800	\$158,200	55%	85%
2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Engineering, Private School, Reserch University	\$86,300	\$155,200	52%	69%
3	Samuel Merritt University	Private School	\$91,200	\$154,100	90%	0%
4	United States Naval Academy	Engineering, Liberal Arts School, Sober School, For sports Fans, State School	\$80,100	\$152,800	64%	58%
5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Engineering, Private School, Reserch University	\$84,100	\$151,600	53%	97%

가나 세무 & 보험

GANAX TAX & INSURANCE

세금과 보험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보험고객에게는 세금수수료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65세이상 고객의 세금보고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사업소득 제외)

세금보고 / 법인설립 / Sales Tax
 세무감사대행 / 회계업무 / Payroll Service
 오바마 케어 보험 / 메디케어 보험 / 기타 보험

beachgana@gmail.com

김선광 (Kayson Kim) (O) 714.827.0707 3008A W. Lincoln Ave
 40년 실무경험의 공인세무사 (C) 714.588.3355 Anaheim, CA 92801